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국제법정

인권, 평화, 그리고 새 천년!

일본군 성노예 할머니들에게 명예와 정의를!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국제법정은

여성의 힘으로, NGO(Non-Government Organization)의 힘으로

열어가는 시민법정입니다

참가국 : 대만, 중국, 필리핀, 북한,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때 : 1999년 12월 4일-10일

곳 : 일본 동경

문의사항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TEL 02)365-4016 FAX 02)365-4017

E-mail : mss@peacenet.or.kr

Homepage : <http://witness.peacenet.or.kr>

〈만들어 가는 사람들〉

- 국제실행위원회 공동대표 : Indai Sajor(필리핀), Yayori Matsui(일본) 윤정옥(한국)
- 법률자문단 : Theo Van Boven(네덜란드), Rhonda Copellon(미국)
- 국제자문단 : Chalotte Bunch(미국), Florence Butegwa(우간다), Tina Dolgopoi(오스트레일리아), Marieme Helie Lucas(알제리·프랑스) Lepa Mladjenovic(세르비아) Indai Sajor(필리핀) 등
-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국제법정 한국위원회

법률분과 : 김명기(명지대), 김창록(부산대), 지정일(한양대), 홍성필(이화여대), 이장희(한국외국어 대학), 이상면(서울대), 정인섭(서울대), 조시현(성신여대), 정진성(서울대), 최일숙(변호사), 최봉태(변호사), 조용환(변호사), 박원순(변호사), 배금자(변호사), 장완익(변호사)

진상규명분과 : 정재경(시립대), 강창일(배재대, 한국역사연구회), 김정기(역사문제연구소), 김봉우(민족문제연구소), 강경숙(정신대연구소), 심영희(한양대), 김은실(이화여대), 이미경(국회의원), 안상남(국회의원) 하중문(한신대), 이철원(심리교육센터 마음길) 양현아(서울대), 여순주(정신대연구소)

기획홍보분과 : 정대협 22개 회원단체, 이효재, 윤정옥, 김윤옥, 지은희, 신혜수, 김신실, 김혁원, 강혜숙, 정숙자, 한국염, 이경실, 윤순녀, 양미강(이상 정대협),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최영애(한국성폭력상담소), 김영호(대구정신대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연대), 안해룡, 경남정신대문제대책을 위한 시민연대, 나눔의집, 태평양전정희생자유족회, 기록영화제작소 모임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국제법정

2000년 일본군성노예 전범법정으로,

여성에 대한 전쟁범죄처벌의 선례를 만들자!

여성에 대한 폭력의 20세기를 마감하고 인권과 평화의 새천년을 열자!

일본군성노예 문제는 일본군에 의해 저질러진 조직적인 인권범죄입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비롯한 아시아 피해각국의 NGO들은 일본정부가 이 문제의 법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투쟁을 수년간 계속해 왔으나 지금까지 일본정부는 국제적인 권고를 무시한 채 책임 회피와 망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일본군성노예 문제에 있어서 이제까지 가장 불충분한 것이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문제입니다. 구 유고슬라비아나 르완다의 전범법정을 통해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전쟁범죄라는 점이 분명히 인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성노예 문제의 진상과 책임은 여전히 명확하게 가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 또한 국제형사재판소를 설립하여 전쟁범죄에 대한 처벌을 명시화하고 있으나 과거의 전쟁범죄 처벌은 다루지 않기 때문에 군성노예 관련범죄는 여전히 취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시아 각국의 NGO들은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국제법정을 통해 '위안부' 전범들을 처벌하지 않았던 도쿄재판을 비롯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아시아 각국에서 이루어진 전범재판을 재검토하고, 여성들의 힘으로 '위안부' 관련 전범자들을 처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률가, 연구자, 운동가들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 움직이고 있는 이 법정은 여성에 대한 전쟁범죄를 처벌하는 선례가 될 것이며 여성운동사에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2000년 학생법정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법정 학생위원회

21세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폭력으로 얼룩진 20세기의 유산인 '위안부'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할머니들에게 명예와 정의를 찾아드리는 길에 청년학생들이 함께합시다! :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국제법정학생위원회(이하 학생법정)은,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국제법정과 같은 길을 갑니다

일본정부로부터 사죄와 배상을 받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 폭력에 대한 반대와 심판을 목적으로 합니다.

2000년 학생법정은

· 일본군성노예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담론들을 학습하고, 논의하고,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 일본군'위안부'문제를 주제로, 진지하고 희망찬 한판 문예마당을 꾸려 보고자 합니다.

· 여학생운동의 현재 위치를 되돌아보고,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이라는 공통된 논의 속에서, '다양성 속의 일치'를 실현해 보고자 합니다.

· 21세기 학생운동의 새로운 모델로서, '여성인권 실현'의 공통된 목표를 갖고 국제적인 연대지점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 만들어 가는 사람들(단위, 혹은 개인)

관악여성모임연대, 이화여자대학교여성위원회, 홍익대학교여성소모임을 준비하는 사람들, 홍익대학교 쿠사, 서울여자대학교 여성소모임 날개달기, 성균관대학교 총여학생회, 통신동호회 미즈, 중앙대학교안성캠퍼스 총여학생회, 서울지역여대생대표자협의회(명지대, 경기대, 건국대, 항공대, 경희대, 감리교신학대학교, 성공회대, 광운대), 부경여대협 산하 7개 대학, 충청여대협(건)산하 9개 대학 총여학생회, 대경여대협 산하 5개 대학 총여학생회, 남여대협 산하 6개 대학 총여학생회, 숙명여자대학교 학생들.

학생법정은 열려 있습니다.

관심있는 모든 분들(단위도 좋고 개인도 좋습니다) 정대협으로 연락주세요!!!(365-4016)

2000년 학생법정

행 · 사 · 안 · 내

▷ 학생법정 세미나(제 5차)

5월 14일(금) 오후 6시

주관 : 학생법정, 정대협

장소: 정대협 교육관

*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의 전개과정

*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활동의 성과와 과제

* 일본의 전쟁책임 이행상의 문제점

▷ 조시현 교수님 초청 게이맥두걸 보고서 강연회

초청 강사 : 조시현 교수님(성신여대 국제법)

· 5월 28일(금) 오후 6시 30분

· 장소 : 정대협 교육관

· 주관 : 학생법정, 정대협

▶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국제법정과 일본군'위안부'문제

- 게이맥두걸 유엔인권소위원회 특별보고관 초청 국제심포지엄

· 6월 4일(금)-5일(토)

· 장소: 이화삼성교육문화원(이화여자대학교 동문회관) 8층(3277-3386)

· 주최: 정대협, 국회 "일본군'위안부'문제 연구모임"

· 후원 : 대한변호사협회

· 참가비: 학생 1만원, 일반 2만원(자료집, 중식, 동시통역 수신기 포함)